

2017, 라오스 11월 활동 보고

- 나먼느아 -



11월 농촌시즌을 맞이하여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2000kip 더 싸서 (8000kip) 꾸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는데... 만족합니다..



벼 수확이 끝난 후, 저희 가족은 지푸라기들을 모아서 다음 농작물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생각보다 지푸라기들을 모아두니까 무거워서 당황;; 지푸라기가 모자라다고 생각되면 다른 마을 주민들 눈에 지푸라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검게 탄 땅이 보이실 텐데, 지푸라기들을 벼 수확이 끝난 논에 골고루 펼친 다음, 불을 지펴 다 탈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른쪽 사진은 수박 / 각종 야채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검게 탄 땅에는 땅콩만 심습니다.



꾸와 함께 수박과 각종 야채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았지만, 땅이 건조하지 않아 생각보다 쉽게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저희 집 뿐 만 아니라, 다른 집 식구들도 농사로 많이 바빴기 때문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고, 집안일을 도왔고, 학생들이 피곤해 했기 때문에 오후 4시반 수업을 밤 8시로 옮겨, 야간 스쿨을 열었습니다. 가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과 가볍게 맥주 한 병을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11월달은 나먼느아 마을 대다수 가구들이 농사활동으로 많이 바빴습니다. 저 또한 교육에 자원활동을 하기 보다는 직접 가족들과 함께 농사활동에 참여하여 친척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다른 달과는 달리, 11월달은 가족들 뿐 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마을 구성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왠지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라오스 11월 활동보고

Viengsamai_조다현

1. Home stay 활동

1) 벼 수확



이번 달은 벼를 베고, 거르고, 쌓는 수확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으로 벼 이삭을 베는 과정이 제가 평소 생각 해왔던 수확 방식과 달라서 새로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지만... 한 두 번 하는 '체험'이 아닌 꽤 많은 인원이 며칠을 붙들고 해야만 끝나는 '일'이 되어버리자, 그리 즐겁게 느껴지지 않은 않았습니다. 날도 뜨겁고, 벼 이삭에 긁혀 피부도 따갑고, 손도 아프고... 그래도 친한 마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한 덕분에, 툭툭대면서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을 할 때보다 일을 마치고 다 함께 둘러앉아 먹은 밥, 그리고 차가운 강물에 입수해 목욕하고 빨래하던 그 시간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 때 먹었던 밥 맛은... 그야말로... 꿀맛! 끈적이고 흠먼지 뒤집어 쓴 몸을 강에 담글 때는.. 정말 개운하고 시원했습니다. 날이 추워서 찬 물로 씻기가 두려웠는데, 수확 후에 바로 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씻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2) 굴 따기



주말마다 방갈로를 짓는 부모님의 일터에 따라가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그 옆에 굴 농장에서 동생과 함께 굴을 따고 담았습니다. 바구니 한 가득 담아온 굴은 가족들과 먹고 이웃들에게도 돌릴 만큼 넉넉했습니다. 굴을 먹으면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 마당에 굴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라오스식 '샤브샤브' 만들기



동생, 그리고 동생 친구들과 함께 '썬수완'이란 라오스식 샤브샤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생선, 고기, 채소... 이것저것 맛있는 재료를 매콤한 국물에 담가 먹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매운탕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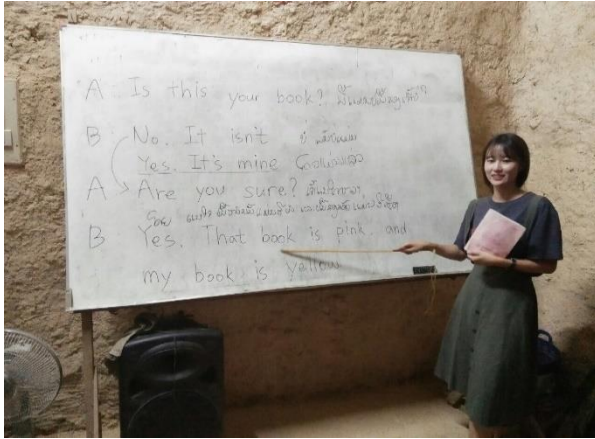
2. Youth center 활동

1) 기부 물품 전달



하루는, 정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오신 손님들께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영어수업을 시연했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이라 당황스러웠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줬기에 평소와 같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 기부된 물품들은 수업 참여도에 따라 학생들에게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결국 다 주는 꼴이 되었다는..)

2) 영어 및 한국어교육



지난 달보다 시간을 늦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영어를, 그후 7시 40분까지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수확시즌이라 지난 달보다 센터에 오는 학생도 줄었고, 저 또한 센터에 가지 못한 적이 많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달에는 센터활동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3) 신체활동



학생들과 '2018년 Vangvieng Dance festival 참가'란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주말 저녁마다 모여 새로운 춤연습에 한창입니다. 원래는 제가 춤을 가르치기로 했었는데,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많아 오히려 제가 학생들로부터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학생들이 선정한 곡에 대한 동영상 및 음악 파일을 찾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이번달은 주말 아닌 축구, 족구, 배구, 배드민턴... 등 여러 스포츠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소감

라오스에 온 지 세 달 째, 함께 사는 가족과 영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덕분에 언어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는 더더도 듣는 대화의 반은 이해가 되는 제 자신이 때로는 신기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까워진 현지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고 싶은데 생활용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영어 역시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통이 불편했지만, 현지인들과 더 이야기해보려고 혹은 설득해보려고 하지 않고 포기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계의 벽을 쌓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비언어적 표현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지 않았을까, 왜 몇 번 더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했을까. 다음달에는 더 용기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라온아띠-라오스 방비엥 11월 보고서, 푸딩댄편

홈스테이에서의 삶: 그냥 완전한 가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즘은 그냥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 생활 중이다. 집안일도 조금은 빠삭해져서 어머니가 잠시 외출을 할 시 집안일을 부탁한다거나 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설거지나 쓰레기 등을 버릴 때면 애가 이런 것도 해? (솔직하게 말하면 3달동안이나 했던 것을) 라는 느낌이 강한 건 이상하다. 물론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한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11월은 벼농사의 수확시즌이자 현 거주중인 집의 소유인 칠리고추의 씨앗을 심는 시즌이었다. 아산에서 배운 농활 스킬을 드디어 써먹은 것이다.



돼지 밥통에서 몰래 먹던 쥐를 발견, 죽임...(는 사실 죽은척 ㅎㅎ)

- 1) **벼 수확:** 우리집 농장이 아니라 현지 코디 중 한명인 캄손의 농장이다. 벼농사를 한 가정 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와서 일하는 것이 새롭고 즐겁기도 하였다. 또한 함께 일 한 후에 만들어 먹는 점심이 그리 꿀맛일 수가 없다.



벼 수확 중, 우리 마을 사람들 여기서 다 만남...

2) 칠리고추 농장: 아직은 허허벌판



우리 집에서 운영하는 칠리고추 농장이다. 같은 마을 사람들도 함께 농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내 자신의 대한 사진을 못 찍은 건 함정...

1. Youth Center 활동

1) English Class

푸딘댕 마을센터에서의 영어수업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난이도 별로 나눈 것인데, First 와 Second Group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 수업은 너무 힘들다. 아이들은 말도 안 듣고 놀러 오는 듯한 느낌만을 줄 뿐이고, 도무지 학업에 대한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애들도 너무나 귀여워서 함께 즐기며 노는 듯한 수업을 주로 한다. 두 번째 그룹은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의 영어실력은 첫 번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고, 이해가 안되면 끊임없이 물어보며 자신의 것으로 터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으로 보람되고 뿌듯하게 한다.





같이 봉사 활동하는 벨기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번 라온아띠 중 최고로 즐거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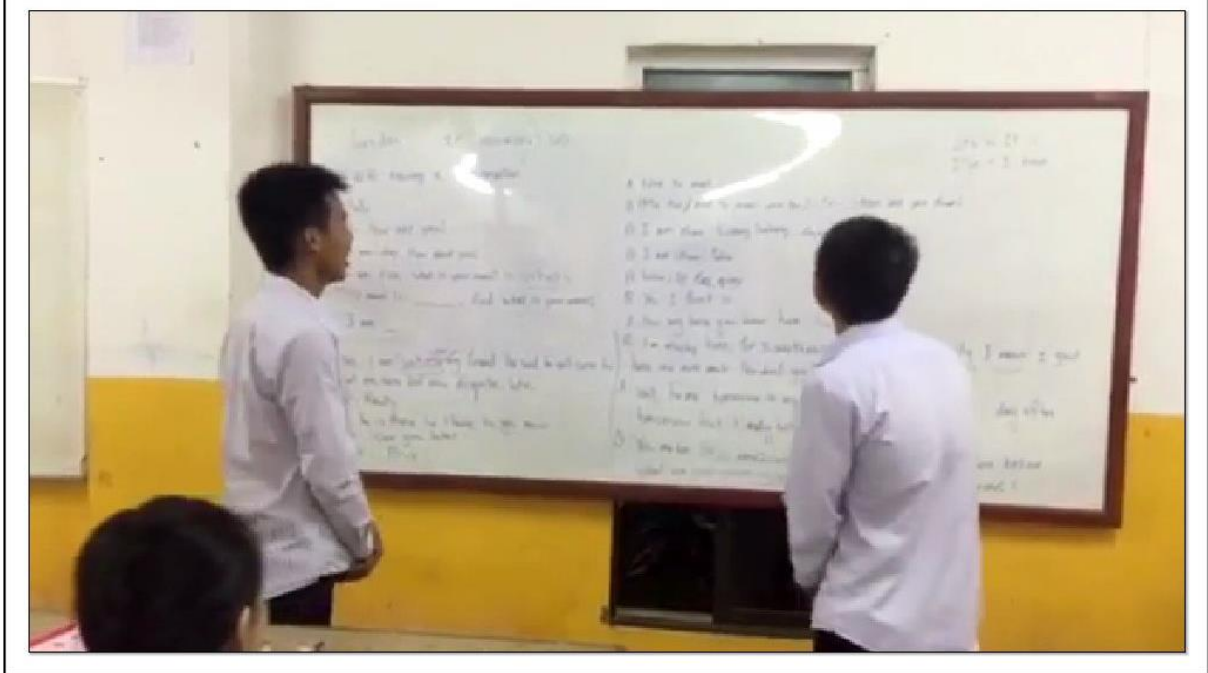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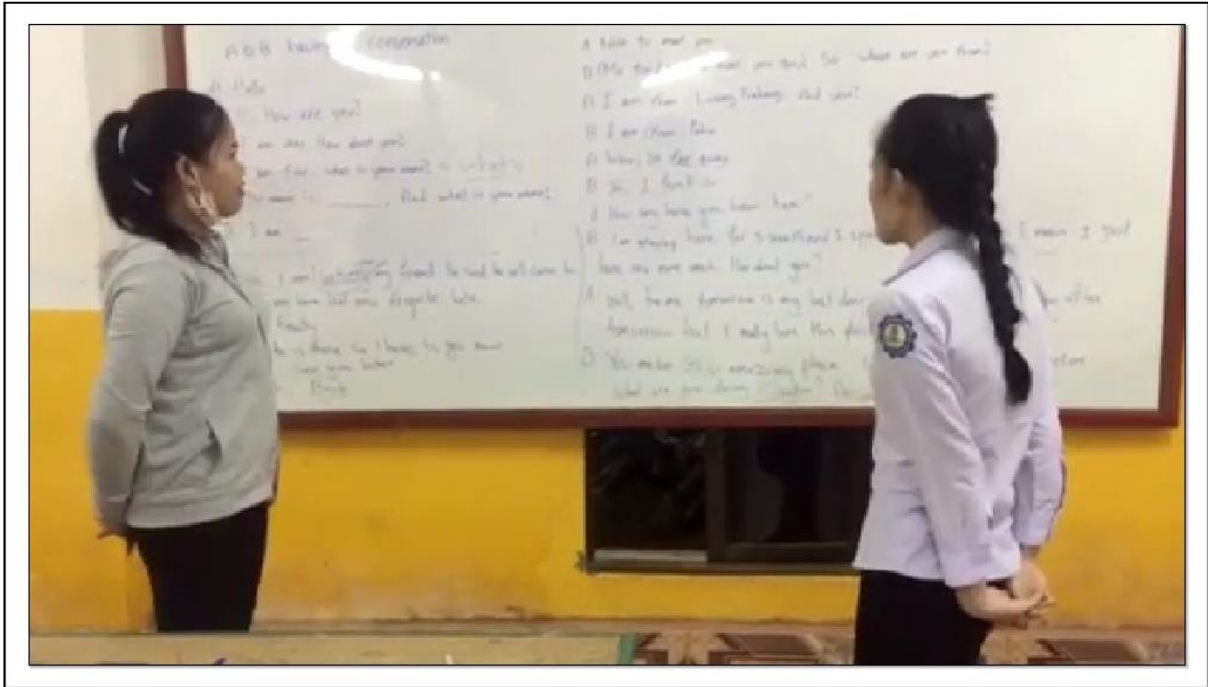
영어실력도 마음껏 늘리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배가 된다.



농사시즌이라 한 명만 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르친다! (이 애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2) Kevin College

현지 대학에서의 봉사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저번에 불량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배우고 싶은지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9/10을 차지하게 되어 그 다음주부터 바로 회화를 주제로 가르쳤다.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 같은 학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집중력과 참여도를 보여주었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의 봉사도 매우 즐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3)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광주봉사센터와의 일이 시작되었다. 함께 거주중인 현지 코디 Khaming을 메인 코디로 나는 서브 코디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메인코디와의 소통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광주는 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업무 효율이 Khaming이나 광주나 배가 되고있다.

List of Programs

- 1. Photos & Videos**
 -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항상 존재하는 활동으로 사진과 영상 전달기사를 정하여 활동들의 모든 부분을 세세히 기록하여 마지막 날 파티시 함께 공유하고 시청하는 것
- 2. K-Pop Dancing & Lao Dancing**
 - 라오스는 한류문화에 열광하는 나라이다. 서로 다른 음악 문화를 경험하고 연습하면서 함께 공연하는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 공연장소는 PVC에서 진행 될 것이다.
- 3. Lao Food Cooking Class & Korean Food Cooking Class**
 - 함께 음식문화를 나누고 배움으로써 요리 중 필연적으로 생기는 소통(비언어적 & 언어적)을 통하여 친밀감을 형성한다.
 - 마지막 날에 있을 파티에서 다같이 음식을 나눌 것이다.
- 4. Construction & Farming**
 - 라오스 현지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광주 해외봉사단은 현지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그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고 서포트 해주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정하게 하여 진행될 것이다.
 - 칠리고추 농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건설은 남자들이, 농장은 여자들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실제로 라오스 어머니들이 주로 농장에 나가신다).
- 5. Drawing & Making Arts with children**
 - 라오스 어린이들과 함께 종이 접기 같은 각종 공예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만들 것을 센터에 전시할 것이다.
 - 3~4개의 팀으로 구성해서 각자 다른 활동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한국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에게 보낸 프로그램 목록이다. 한국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현지 상황을 잘 조합하여 만든 결과다.

느낀 점: 이상하게 한달, 한달이 지날수록 할 일이 한가지씩 늘어나는 건 기분 탓인가? 처음에는 너무 지루하고 할 것도 없다고 불평을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점점 바빠지는 나를 보며 한가롭게 요리하며 즐겼던 일상이 조금씩 그리워 지고 있다. 아이들이 점점 더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벌써부터 헤어짐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좀 더 나은 것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라온아띠에서 그렇게 교육받고도 결국 생각하는 것은 먼가를 해주고 싶다는 것인가?) 현지를 알면 알수록 모순되는 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다. 라오스가 우리나라 1980년대쯤 되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불편한 것들도 많다. 친절할 나라, 예의 바른 현지인들도 다 모순된 것 같다. 자세한 것은 12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